**선다싱을 만나다/ p147**

****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 가운데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복되게 하시고 더욱 도우십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돌을 옮기는 일에는 그분의 능력이나 도움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들이 순종하고 돌을 옮기자

주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수의를 벗겨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심과 무지의 돌을 옮겨줄 수 있지만,

그 무덤 속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쁜 습관과 악한 친구들을 버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이들이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로워 지도록 도울 지속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위대한 섬김이 필요할 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온전히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의심과 염려로 가득하여

무리를 보내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게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자 먹기에도 모자라는 도시락을 가진 작은 소년에게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소년은 어머니가 싸주신 보리떡 몇개와 말린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주님이 나머지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확신하고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 곳에는 과일이나 밀빵을 가진 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소년의 보잘 것 없는 음식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Tags

하나님 일과 우리일

회개 청종 믿음 의심 내주